

기독교문화란 무엇인가?

김경완(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문화/예술 3-1)

I. 서론

기독교인들 사이에 ‘기독교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이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고 보기에 여전히 애매한 것이 현실이다. 과연 기독교 문화라는 말은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무엇이 기독교문화라는 말인가. 그래서 ‘기독교와 문화’ 또는 ‘문화와 기독교’라는 말로 풀어쓰므로 ‘기독교문화’라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것에 대한 대안을 삼기도 한다.

이 글은 ‘기독교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기독교문화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의(定義)’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일이다. 논리학적으로는, 어떤 개념의 내포(內包)¹⁵⁾를 구성하는 여러 속성 가운데 본질적인 속성을 들으로써 다른 개념과 구별하여 그 내포를 한정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사람은 이성적(理性的) 동물이다’와 같이 판명(判明)하게 하려는 개념을 주어로 하고 종차(種差)¹⁶⁾와 최근류(最近類)¹⁷⁾를 객어로 하는 판단으로써 성립된다.¹⁸⁾

‘기독교문화’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해내기 위해서는 기독교문화를 다른 문화와 구별하는 표준이 되는 종차를 잘 드러내야 할 것이다. ‘기독교문화’의 최근류는 상위 유개념인 ‘문화’가 될 것이다. 기독교문화가 무엇인지 정의내리는 과정은 문화에 대한 정의, 문화의 기원, 문화의 타락, 기독교문화의 형성, 기독교문화와 세상문화, 기독교문화의 미래, 기독교문화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문화선교, 기독교문화의 정의가 될 것이다.

기독교문화와 연관된 주요 연구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리처드 니버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결단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가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간의 업적이 관여하는 문화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인 은혜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변증했다.¹⁹⁾

프란시스 쉐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삶과 예술 속에서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보았다.²⁰⁾ 로버트 E. 웨버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선재하는 존재, 창조주, 성육신한 존재, 구속

15) 어떤 속성이나 뜻을 속에 포함하는 것. 어떤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성질의 전체. 또는, 개념 속에 들어 있는 속성. 예를 들면, ‘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성(理性)’이나 ‘동물성(動物性)’ 등이다(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초판) 1992(중판). 564쪽).

16) 동위 개념 중의 한쪽 개념에 특유한 성질로, 그것을 다른 개념으로부터 구별하는 표준이 되는 특성이다(금성관 국어대사전, 2742쪽).

17) 개념 사이의 유종관계(類種關係)에 있어서, 어떤 개념의 바로 상위에 있는 유개념(類概念). 어떤 개념에 외연(外延)으로서 직접적으로 포괄되는 개념이다. 이를 떼면 동물에 대한 생물과 같은 것이다(금성관 국어대사전, 2981쪽).

18) 금성관 국어대사전, 2666쪽.

19)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256.

20)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View of Philosophic And Culture*(England: Inter-Varsity Press, 1968), 문석호 역, 『기독교 문화관』(경기도: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초판 2007 증쇄), 419쪽.

자, 구주로 파악한다. 아울러 문화의 의미는 인간의 활동이며 피조된 사물의 질서와 관련된 행위라고 본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피조계를 개발하여 모든 문화 영역이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¹⁾

김영한은 기독교문화는 역사 속에 진정한 문화의 기준이 없다는 회의주의나 역사 속에서 사회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고 적합한 문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차별주의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 왕국에서 실현될 신율적(神律的) 문화에의 근사치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²²⁾ 케빈 밴후저는 문화에 대해 교회가 무책임한 인습타파의 해석학이나 교만한 행동에서 비롯된 해석학이 아닌, 자비와 겸손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의 해석학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변했다.²³⁾

박양식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실천이 문화영역에 일정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문화실천자는 문화비평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콘서트를 보고 잡지를 사서 읽으며 각종 문화상품을 향유하는 것이 곧 문화의 의미를 창출하는 행위가 되고, 그것은 기독교문화의 창출을 예시하는 토대가 된다고 주장했다.²⁴⁾ 임성빈은 변혁이란 사람들에게 복음과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도록 도전하는 것을 말한 것이며, 교차 문화적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의 문화적 가치와 상징에 대한 신실한 증거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논증했다.²⁵⁾

신국원은 세상 열락에 빠져 삶을 낭비하고 죄 속에서 스러질 인생을 영생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어 천국을 바라보게 한 비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문화적 태도를 역설했다.²⁶⁾ 추태화는 역사와 문화신학의 대화, 대중문화 시대 그 복잡한 현상들, 교회의 문화인식과 문화목회, 기독교와 문화 연구 방법론을 논구하면서 기독교문화학이 고유한 방법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기독교세계관이 제시하는 신앙고백적 토양에서 성숙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²⁷⁾

필자는 기독교문화가 예술적 표현과 여러 유적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 일으키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라고 논의했다.²⁸⁾ 찰스 크래프트는 예수님과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시고 그들이 가진 문

21) Robert E. Webber, *The Secular Saint-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이승구 역, 『기독교문화관』(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4 초판, 1987 3쇄), 10-15쪽.

22) 김영한, 「기독교와 문화」,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기독교와 문화』(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7), 49쪽.

23) 케빈 밴후저, 「세계는 과연 무대로서 적합한가? 신학, 문화 그리고 해석학」, *God And Culture*(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3), D.A.카슨 · 존 D. 우드브리지 엮음, 박희석 역, 『하나님과 문화』(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56쪽.

24) 박양식, 『분별력-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화-』(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225쪽.

25) 임성빈, 「기독교적 문화관의 형성을 향하여」, 문화선교연구원 엮음,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29쪽.

26) 신국원,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355쪽.

27) 추태화,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문화학』(서울: 코람데오, 2004), 293쪽.

28) 줄저, 『기독교문화의 실제』(서울: 도서출판 불과구름, 2005), 12-13쪽.

화적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심을 가르친다고 언급한다.²⁹⁾ 신웅철은 기독교문화학은 급변하는 시대의 문화상을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의 문제,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냐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바람에서 태동한다고 보았다³⁰⁾

이상의 기독교문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기독교문화의 정의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의 정의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II. 문화의 정의

문화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얻어지고, 함께 나누며, 이어가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모든 것을 일컫는다. 태초에 창조되었던 상태에 인위적인 것이 더해지거나 그것을 극복한 것이기도하다. 말과 글, 풍습, 도덕, 믿음 체계, 학문, 예술, 제도 등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필요로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발자취가 문화인 것이다.³¹⁾ 문화란 하나님이나 궁극적 의미에 대한 믿음, 가치 기준, 관습, 제도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체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³²⁾

또는 문화를 인간의 언어와 기술로 형성된 모든 관념적 또는 경험적 현실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개념을 만들어내고, 개념을 통해 다양한 정신적 물질적 문화들을 창출한다는 점에 착안한 문화의 정의인 것이다.³³⁾ 이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화의 정의를 바탕으로 문화를 새롭게 정의한다면, 문화란 ‘인간의 탄생 이래 형성된 삶의 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문화의 기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정리하고자 한다.

III. 문화의 기원

사물이 생긴 근원, 즉 기원(起源)의 문제는 과학적 합리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며, 신앙고백의 문제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인간인 만큼³⁴⁾, 인간의 창조에 대해 가장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성경을 토대로 문화의 기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문화의 기원은 태초로부터 시작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창세기 1:1). 본체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요한복음 1:2,3). 6일동안 차례로 빛, 하늘, 바다와 땅 채소와 과목, 해 달 별, 새 물고기, 육축과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까지 만든 하나님은 심

29) Charles H.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A study in Dynamic Biblical Theologiz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New York: Orbis Books), 임윤택 · 김석환 역, 『기독교와 문화』(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5쪽.

30) 신웅철, 『기독교문화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북코리아, 2006), 47쪽.

31) 금성판 국어대사전, 1072쪽 참조.

32) The Willowbank Report, *Gospel and Culture*, 윌로우뱅크신학협의회 지음, 조종남 편저, 『복음과 문화』(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1 초판 1993 4쇄), 15쪽.

33) 최인식, 『예수와 문화』(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48쪽.

34) Leslie A. White, *The Science of Culture: A Study of Man and Civilization*(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49, 1969), 이문웅 역, 『문화과학-인간과 문명의 연구 -』(서울: 아카넷, 2002), x x iv쪽.

히 기뻐했다(창세기1:3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창세기 1:27). 하나님에 의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창세기 2:7). 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마음판에 아로 새겨진 것이다.

인간이 갖게 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언어 구사 능력, 창의성과 믿음 체계, 예술성, 도덕성, 사회성, 문화 생산성 등이 나타나게 된다. 문화의 기원이 인간에게 생기를 통해 자신의 형상을 제공해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8)고 사명을 부여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른바 문화명령으로 잘 알려져있다.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화행위다. 정복하라는 것은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성경의 원리에 적합할 것이다. 정복을 파괴와 무분별한 개발로 오해할 때 생태계 손상의 피해를 인류가 감수하게 된다. 다스린다는 것은 잘 관리한다는 것이다.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창조주의 청지기로서 세상 만물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화 행위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담은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로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한다(창세기 2:19).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데려오자 아담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세기 2:23)며 즉흥시를 창작한다. 타락하기 이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아담과 하와의 문화는 기쁨과 평강과 영원한 생명의 문화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였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문화의 기원이 된 것이며, 이 문화의 기원이 가능하게 되었던 까닭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어준 생기에 각인되었던 문화활동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기원은 ‘하나님이 창조한 첫 인간’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태초의 창조는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³⁵⁾ 하나님이 창조한 첫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로서 흠이 없었지만, 여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문화의 타락이 일어난다.

IV. 문화의 타락

에덴동산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법 문화는 모든 실과의 열매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었다(창세기 2: 16, 17). 하지만 뱀의 꾀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창조주의 법에 따라 반드시 죽게 되며 에덴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창세기 3:24). 이후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간의 문화는 죄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며, 비교와 갈등과 시기와 살인과 거짓과 다툼과 우상숭배의 요소들로 얼룩지게 된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배려 가운데서 그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간다.³⁶⁾ 하지만 이 문화는 타락

35) 김영한, 『21C 사이버, 생명문화와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288쪽.

의 어두운 그림자의 영역 안에서 인간에게 죄로 인한 고통과 전쟁과 기아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문화인 것이다. 창조주의 선하신 창조가 죄로 물들고, 깊은 고통과 죽음의 심연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타락의 문화요 죽음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문화, 생명의 문화로서 기독교문화를 형성하도록 세계의 역사를 인도한다.

V. 기독교문화의 형성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다(요한복음 3:16).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대신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의 죄도 함께 죽는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섬기러왔다(마가복음 10:45).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섬기며, 온 인류와 구원받을 이들을 섬기러 왔던 것이다.

기독교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문화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섬기며 이루어지는 문화다. 기독교문화는 ‘믿음’과 ‘섬김’의 문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타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공동체의 문화가 기독교문화다. 기독교문화의 범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기독교문화의 대상은 모든 존재로부터 모든 존재까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이 사실을 믿었던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이를 믿게 된 당대의 사람들과 이 사실을 믿게 될 미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이를 믿는 신앙의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것은 지난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기독교신학, 기독교음악, 기독교미술, 기독교문학을 꽃피우며, 기독교문화의 우주를 형성해온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문화는 세상문화와 공존하며 발전해왔다. 세상문화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제반 문화 양상을 일컫는다.

VI. 기독교문화와 세상문화

기독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세상은 정치적 최고 통수권자를 왕으로 대접하며, 돈이나 명예나 우상이나 자신을 왕의 자리에 두고자 한다. 기독교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부활과 재림을 노래한다. 성령의 사역과 속죄와 거듭남과 성결을 노래하며, 회개와 사죄, 소명과 헌신, 평안과 위로, 성도의 교제를 노래한다. 세상음악은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갈등과 반목과 질시와 이별과 고통을 노래한다. 기독교음악이 궁극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반면, 세상음악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허무로 종결짓는 경향이 짙다.³⁷⁾

36) 이승구, 「기독교 문화 변혁론」, 『기독교학저널』 4(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기독교학과, 2007), 176쪽.

37) 최근 주로 불리는 기독교현대음악 가운데,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조영준 작사 작곡)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 주님 내게 먼저 오사 / 내 맘을 만지고 /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http://music.godpeople.com/?SCRno=3216 에서 2008

기독교미술이 천지창조, 모세의 홍해 기적, 최후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등을 주제로 형상화하여 신앙적 가치 고양을 추구하는 반면, 세상미술은 다양한 세상 소재에 대해 작가의 인간적 감동을 극대화시키는데 그치게 된다.³⁸⁾ 기독교문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애 및 인간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묘사해 나가는 것이라면, 세상문학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해소의 반복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한다.³⁹⁾

기독교문화는 세상문화와 공존하지만 세상문화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발휘하며 세상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기독교문화는 세상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장점을 살리며 단점을 극복하게 하여 변혁적인 문화를 지향하게 인도한다. 이 일은 종말이 올 때까지 감당해야 할 기독교문화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문화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VII. 기독교문화의 미래

기독교문화의 미래는 ‘기독교문화’에서 ‘기독교’라는 글자를 뺀 ‘문화’로서도 ‘기독교문화’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는 타락하기 이전의 인류가 간직했던 에덴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덴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림과 종말 때까지 기독교문화는 그 이름을 간직한 채 문화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문화는 지구촌에서 불교문화, 이슬람문화, 유교문화, 힌두교문화, 무신주의문화, 물신주의문화, 과학주의문화, 포스트모던문화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타문화들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복음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며 구원의 길로 안내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 기독교문화는 여러 문화 중의 하나가 아니다. 기독교문화는 주변의 여러 문화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가치들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문화가 추구하는 구원의 목표를 향해 정확히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년 5월 5일 인용) 이 가사를 살펴보면, 고난의 인생 길에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희망이 임하게 된다는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로 부정 속의 강한 희망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요즈음 많이 불려지는 세상음악 중에서 가수 주열리가 부르는 <나는 나 너는 너>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너의 말이면 뭐든지 다 했어 / 맞춰주려고 애썼어 / 너를 만날 땐 나를 다 버렸어 / 그게 사랑일거라고 / 너라서 너여서 참았는데 난 나를 바보로 봐 / 나는 나 너는 너 멋대로 날 네 틀에 가두지마 / 난 이제 변할꺼야 / 여자란 이유로 바보처럼 살지 않아 / 난 너를 위한 장난감이 아냐 나 답게 살 거야 그래 나는 나니까” (<http://listen.daum.net/info/singerinfo.asp?areaKubunCode=A&artistNo=0901738>에서 2008년 5월 5일 인용) 이 가사에는 인간 사랑의 한계와 자기애가 주제로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38) 예를 들어, 기독교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http://www.imoon21.com/rena/mi_bio_start.htm에서 2008년 5월 6일 인용)는 하나님의 웅대한 창조세계를 묘사해주는 반면, 세상미술의 한 예로 들 수 있는 작품으로 최근 삼성가의 고가 미술품 논란으로 알려진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http://fromars.tistory.com/34>에서 2008년 5월 6일 인용)은 눈물흘리는 여인의 빨간 메니큐어가 세속적 행복을 상징해주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39) 박목월 시인(1916-1978)은 세상 소재 중심의 시를 쓰다가 나중에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시들을 창작하게 되는데, 그 양자를 비교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산이 날 에워싸고>의 “산이 날 에워싸고 /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가 세상 순응적인 인생관을 보여준다면, <오른편>의 “궁핍하고 어려움을 때마다 / 오른편을 살펴본다. /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은 성경중심적 인생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기독교문화의 책임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충실히 감당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독교문화의 사회적 책임은 기독교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비례한다. 기독교문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독교문화예술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기독교문화예술인은 스스로의 삶이 성경 중심, 기도 중심, 청교도적 윤리 중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성경 말씀과 기도와 윤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므로 가장 중시하며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독교문화예술인은 음악, 미술, 문학, 건축 등의 제반 영역 속에서 성경의 가치에 가장 합당한 작품을 만들어가되 그 속에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장치들을 타당하게 함축하므로 사회에 대한 책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직, 청렴,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빈민구제, 이웃사랑, 근검절약, 성실성 등을 강조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양산하여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비추며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태도와 활동이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수행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이 될 것이다. 기독교문화예술인은 겸손한 확신을 지닌 해석자요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양심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이며, 그들이 쓰는 주석과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는 성경의 의미를 점차로 구현하는 일을 추구한다.

이 가운데서 성경의 궁극적인 증거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차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증인이자 순교자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견디며 성취해나가야 할 것이다.⁴⁰⁾ 기독교문화예술인이 자신의 문화예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순교자로서 치열하게 활동한다면 그 미래는 공동체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책임지는 행위가 될 것이다.

기독교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한 종말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해 완성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기독교’라는 글자가 붙지 않아도 ‘문화’ 자체로서 기독교문화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독교문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하나의 문화선교라고 할 수 있다.

VIII. 기독교문화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문화선교

기독교문화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문화선교인데, 그 대표적인 영역으로 문학선교, 음악선교, 미술선교를 들 수 있다.

문학선교란 문학에 대한 선교이며, 문학을 통한 선교다. 문학은 사상·감정을 상상력에 의해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작품이다. 문학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평론 등 다양한 장르들이 있다. 이 장르들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을 간직하게 되면, 각각 기독교시, 기독교소설, 기독교희곡, 기독교수필, 기독교시나리오, 기독교평론이 되는 것이다.

40) Kevin J.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8), 김재영 역,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747쪽.

시(詩)는 문학의 한 장르로서 만물이나 인생 등의 모든 사물에 대해 우러나오는 감흥과 사상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 형태에 따라 정형시·자유시·산문시로 나뉘고, 내용에 따라 서정시·서사시·극시로 나뉜다. 시는 시인의 상상력을 증시하는 데, 이 상상력의 원천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시에 대한 문화선교적 접근은 매우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문학 장르들은 그 자체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해당 장르의 작가들을 통해 창작된다는 점에서 문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문학선교의 최우선적 선교 대상은 바로 문인들이다. 문인들의 인생관과 사유체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세계관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 기독교 문인들을 통해 훌륭한 문학선교의 매개인 기독교문학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예언시에서 유리즌(Urizen)과 로스(Los)는 인간성의 타락과 회복이라는 시적 주제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이다. 블레이크는 『밀턴』에서 ‘놀라운 구원자 예수님 : One man Jesus the saviour, wonderful!’이 오셔서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고 사랑의 자녀가 되기를 노래한다.

『예루살렘』에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노래한다. “나는 그대에게 황금색 실의 끝 부분을 내어 준다 / 다만 그 실을 감아서 둥글게 했을 뿐이다: / 그것은 그대를 천국의 문에서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 예루살렘의 벽에 세워져 있는.(I give you the end of golden string, / Only wind it into a ball: / It will lead you in at Heaven’s gate, / Built in Jerusalem’s wall.)” 블레이크의 이상은 인간이 어떻게 상상력을 회복하여 신성함을 회복하느냐의 문제다.⁴¹⁾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때라야 가능한 것이다. 블레이크는 바로 그 가능성을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형 김현승의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시에서 김현승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 오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기독교적 상상력을 사용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집으로 돌아가라 / 서울의 시민들이여, / 아기의 잠이 깨지 않게 구두소리도 낮추며 / 고요히 집으로 돌아가라. / 그리고 촛불을 준비하라, 왜 이 밤에는 촛불을 켜는지를 아는가? / 크리스마스는 호롱불 켜던 / 가난한 말구유로부터, / 모든 세계에서 - 서울에서까지 / 지금은 너무도 멀어졌다. //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선물을 드리라. / 아내나 남편 또 친구들에게 / 아기에게 드리던 / 동방박사의 선물을 드리라. / 기쁨과 눈물과 해방을 겹겹으로 썬 / 아름다운 선물을 드리라. //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종을 울려라. / 그 옛날 파닥이던 천사의 노래소리와 같은 종을 울려라! / 바다 건너 산 넘어 하나의 언어로 / 십이월의 안개 속을 퍼지게 하라! /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 화려한 상자보다 그 안의 작은 구슬을 고요히 어루만져 보라.”⁴²⁾

김현승 시인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자랐다가 오랜 회의의 시간을 거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믿음을 회복한 뒤, 신앙시를 많이 창작했다. 위의 시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축하 분위기로 인해 가정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멀리했던 데서 가정을 살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새롭게 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시심이 잘 나타나 있다.

41) 강옥선, 「블레이크의 유리즌 연구」, 한국문화과종교학회 편, 『문학과 종교』 제5권 2호(2000), 25쪽, 36~37쪽.

42) 김현승,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돌아가라>, 『김현승 시전집』, 민음사, 2005. 607~608쪽.

김현승 시인은 젊은 시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기독교 신앙시를 써나갔다. 독자들은 김현승 시인의 생애와 시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시를 통한 문학선교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엇, 블레이크, 윤동주, 김현승, 박두진, 박목월, 황금찬, 용혜원 등이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들이다. 이들은 동시에 빼어난 시문학선교사들이기도 한 것이다. 앞으로도 훌륭한 기독교시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데 교회와 기독교계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소설이란 문학 형태의 하나로서 작가의 상상력·구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성이나 사회의 모습 등을 등장 인물의 심리·성격·줄거리의 발전 등을 통해 표현한 산문체의 문학이다. 고대의 전설·서사시, 중세의 설화 등의 계보를 이어받아 근대에 와서 발달했다.

이 소설을 창작할 때, 기독교세계관을 중심에 두고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기독교소설이 된다. 기독교소설을 쓰는 작가는 물론 기독교소설가가 되며, 동시에 그는 문학선교사의 소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연희 권사의 기독교 장편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에서 주인공 맹의순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소설을 통한 문학선교의 실재를 만나게 된다. “예수를 만나시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시오. 그가 내 대신 십자가에 못박혀 내 대신 죽었으므로 나는 죄에서 놓여난 것이요. 나의 죄값을 그가 그의 목숨으로 깨끗하게 치렀으므로 나는 깨끗해졌고 깨끗하므로 사랑을 완전하게 회복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죄값을 거두시고 이제 사랑으로 나를 다시 품으신 것이요. ……예수는 그렇게 그의 일을 끝내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부활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주인공 맹의순도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수용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성경적인 사랑이 짙게 농축되어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⁴³⁾ 기독교소설가 정연희 권사는 실존했던 작중 인물 맹의순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죄사함과 부활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 표현해 내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소설을 통한 문학선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독교소설을 읽어가면서 독자는 주인공 맹의순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동을 받으면서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천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하여 배위량부인, 안국선, 최병현, 전영택, 임옥인, 백도기, 황순원, 김성일, 조성기, 김건숙 등을 대표적인 기독교소설가요 문학선교사라고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희곡은 상연을 목적으로 한 연극의 각본이다. 주로 회화(會話)와 연기로 표현되는 문학 작품이다. 이 희곡에 기독교세계관이 투영되면 기독교희곡이 된다. 교회에서의 연극 즉 교회극을 위한 희곡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본을 구해서 연습하기도 하며, 일부 대사를 바꾸어 교회에 맞는 대본을 만들기도 한다. 또는 해당 교회에서 대본을 만들어 교회극으로 올리기도 한다.

무대, 점점 밝아지고,

43) 출처, 『기독교소설과 <내 잔이 넘치나이다>연구』, 『기독교문화의 실제』(서울: 도서출판 불과구름, 2005), 328~329쪽.

노인, 드디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른다.

노인 : 아가!

소리 : …….

노인 : 도대체 어찌된 일로 그렇게 무거웠느냐?

(한숨 내쉬면서)

어디 얼굴이나 좀 보자꾸나!

(아이를 강둑에 내려놓는다.)

아니? (놀란다.)

그렇다면! 네가 바로?

소리 : …….

물소리, 이따금 새소리뿐, 거기 후광에 싸인 아기 예수 누워 있다. (인형으로)

노인 : 세상에 이럴 수가! (사이)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회상한다.)

기다림도 만남도 다 잊고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그저 그렇게 지내왔는데! (사이)

당신, 이렇게 내게로 오시다니.

(노인 무릎 꿇는다.)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이따금 산짐승 우는 소리.

막이 내린다.⁴⁴⁾

이와 같이 교회극을 위한 희곡 대본을 통해 회중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그 스토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므로 회중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이끄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희곡은 그 대본 자체로서도 읽기와 상상력을 통해 감동을 주므로 문화선교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된다.

수필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과 만물에 대해 보고 느낀 것을 생각나는대로 써 나가는 산문 형식의 짧은 글이다. 여기에 기독교세계관이 반영되면, 좋은 기독교수필로서 문화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고맙습니다. 교회를 옮기더라도, 아드님이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예배도 빠지지 마시구요.”

부인은 싱글벙글 웃음을 멈추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에 대한 기도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들이 새 옷을 사 가지고 돌아왔기에, 이렇게 일도 안 나가고 일찍 교회에 왔고, 졸지도 않았으니까요.”

아, 하고 전도사는 그제서야 생각이 미쳤다. 부인 뒤쪽에 서 있는 낯선 얼굴! 부인의

아들이 어머니의 뒤에 선 채로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생동하는 기쁨으로 환하게

44) 강정규, 교회극 <등불>, 『기독교문학』 16, 한국기독교문인협회, 1995. 372쪽.

웃는 부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전도사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인 성경 속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다. 회개한 죄인을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 부인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돌아온 아들을 맞아들이는 어머니의 가슴에 물결치는 기쁨과 꼭 닮아 있지 않을까.⁴⁵⁾

글쓴이가 어느 전도사의 목회시절 체험담을 들려주며 돌아온 아들을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와 연관시키며 하나님의 맞이해주시는 사랑을 아름다운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필은 읽게 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해주며, 비기독교인들도 체험에 기초한 문학적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수필의 문학선교적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선교는 다양한 장르에 걸쳐 신앙과 문학성을 겸비한 많은 문인들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 이 일은 교회와 기독교교육기관과 뜻있는 기독교 독지가들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문학선교는 기독교문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 문단에 나아가 탁월한 문학성을 바탕으로 그 문학성을 인정받되, 고도의 농익은 기독교신앙의 표현으로 감동어린 작품 세계를 구축하게 되면 더욱 폭넓은 영혼 구원의 장을 펼쳐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문학선교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문학선교의 일환으로 성경을 소재로 한 전국 백일장을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농어촌 및 전국 각지에서의 가족 초대 유명 시인의 기독교시 낭송회, 참가자들의 신앙시 낭송회 등을 여는 것도 문학선교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음악선교란 음악에 대한 선교이며, 음악을 통한 선교다. 음악은 박자·가락·음색·화성 등을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결합시켜, 목소리나 악기를 통해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음악은 지역에 따라 국악과 서양음악, 동양음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 성악과 기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주 형태에 따라 독창, 중창, 합창, 오케스트라음악, 판소리창, 뮤지컬, 기악연주회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장르들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을 간직하게 되면, 각각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음악이 된다.

기독교음악의 다른 표현이 교회음악이다. 교회에서 불리워지는 음악을 말한다. 교회음악은 궁극적으로 말씀에 부응하는 음악이어야 한다.⁴⁶⁾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음악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음악의 세계는 그 범주가 무궁무진하다. 얼마든지 다양한 가사와 곡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을 표현하기에 매우 용이한 예술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오직 찬양만이 울려 퍼진다는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른다.

음악선교는 음악 자체를 복음화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을 담은 가사들을 계속 창작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영혼에 복음으로 인한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곡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

초대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은 시편 찬을, 중세 유럽인들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16세기 이후의

45) 김영진, <돌아온 아들>, 『기독교문학』 24, 한국기독교문인협회, 2003. 351~352쪽.

46) 이건용, 「한국 기독교와 음악」,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한국 기독교와 예술』(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7), 71쪽.

독일인들은 코랄을, 근세 미국의 흑인들은 영가를 불렀다. 한국 개신교 찬송가의 경우,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부터 가져온 찬송가를 번역하여 불렀다.

찬송가는 각 교파간의 의견 절충 또는 의견 충돌 등에 의해 또 가사 조정, 악곡 조정 등의 필요에 의해 여러번 개편되었지만, 그 120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찬송가 책의 변천은 있었지만, 찬송가의 변천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여러 교파에서 파송된 이들이었으므로 그들에 의해 발간된 찬송가들은 서로 같지 않았다. 교파마다 부르려는 찬송가들이 달랐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1885년부터 이땅에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고, 1892년에 악보없는 노래 27곡을 모은 『찬미가』가, 그 이듬해에는 4성부의 악보가 붙은 117곡의 『찬양가』가 만들어진다. 이는 개신교가 보다 자유로운 가운데 다양한 노래를 회중들에게 부르도록 권했기 때문이다.

1895년에는 북장로교의 『찬성시』, 1911년 성결교의 『복음가』 등 교파마다 찬송가 책을 발간하게 된다. 이 책들은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판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곡을 첨가해 넣은 증보판을 내는 정도로 빠른 확장을 보였다. 남장로교의 『찬양가』에서 보듯 개신교의 찬송가는 애초부터 4성부 합창곡 양식으로 만들어져 나왔는데 그것은 물론 미국 찬송가의 양식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이었다.

1908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으로 『합동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이 찬송가는 20년 동안 43회의 증판을 통해 87만여권을 발간했다. 이 찬송가야말로 한국 개신교의 찬송가의 틀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한국인의 음악적 감수성을 바꿔 놓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다.

1928년 이후 장로교와 감리교는 다시 교단별로 다른 찬송가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로써 성결교의 부흥성가까지 합하여 크게 3원화된 개신교의 찬송가들은 1949년 또 한번 통합된다. 이 때 통합된 찬송가는 『찬송가』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어 1967년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개신교 찬송가들은 각 교단이 부르는 독특한 노래들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찬송가들에서 옮겨왔기에 음악적으로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1949년에 장로교·감리교·성결교 세 교단이 공동으로 펴낸 『찬송가』는 세 교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 중 각 교파의 특이한 것은 전부를 편입하기로 하고, 공통의 것은 가사를 적절히 선택하여 편입하기로 하는 원칙 밑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찬송가에 한국 사람의 작품이나 한국의 노래를 선율로 채택한 것은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찬송가를 편입시키기로 한 것은 1967년의 찬송가 개편 작업에서 반영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음악적 문화 상황을 의식한 고려였다.

1967년에 나온 『개편 찬송가』에 이동훈, 광상수, 박재훈, 박태준을 비롯한 10명의 한국 작곡가들에 의한 27편의 창작 찬송가가 삽입된다. 1967년 이후 개신교의 찬송가는 『새찬송가』, 『개편찬송가』 등으로 분열되는데 이에 불편을 느낀 개신교 교단들은 선교 10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통일 찬송가를 만들기로 합의한다. 그리하여 초교파적으로 찬송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오랜 작업 끝에 1983년 ‘『찬송가』(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를 펴낸다.⁴⁷⁾ 최근에는 ‘21세기찬송가위원회’가 조직되어 한국인에 의한 창작 가사와 창작 곡을 공모하고 대폭 추가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선교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음악의 수용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음악을 통한 기독교 선교는 한국의 경우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교회음악의 전범이 되는 미국의 찬송가를 번역해서 그대로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우리의

47) 이건용, 앞의 글, 50~58쪽 참조.

교회음악이 형성되면서 보다 한국적인 교회음악의 탄생을 이루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교회음악은 서양음악이기도 했으므로 한국의 음악이 서양음악을 수용하여 한국적 음악을 만들어가는 데도 큰 공헌을 했다. 한국의 찬송가는 모두 한국어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의상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미국의 가사를 번역한 것이 많고, 서양의 곡조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한국인들에 의해 불리워지는 가운데 한국적인 것으로 변모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찬송가는 우리의 음악이 비교적 온전히 복음화된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찬송가가 불리워지는 곳에서 사람들의 귓가에 복음이 들려진다. 이것은 음악선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교회와 기독인들에 의해 많이 불려지는 것이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현대기독교음악)이다.

CCM은 시대적인 흐름에 초점을 둘 경우, 기독교음악인데 현대적인 스타일의 음악이라는 뜻이다. 기독교 신앙에 초점을 둘 경우, 현대적인 음악이면서 기독교 신앙이 가사 속에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CCM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음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CCM은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를 가리키기도 한다. CCM은 그 곡조가 신세대풍을 지니고 있어 믿지 않는 이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이 점이 음악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선교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면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CCM 가수로 송실대 음악원 교회음악과의 겸임교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송정미 씨를 들 수 있다. 송교수의 작품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CCM송은 ‘축복송’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1988년에 창작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지고 있다.

1.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⁴⁸⁾

이 CCM 가사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10절을 기초로 창작되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이 CCM 가사를 통해 찬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곡조가

48) 송정미, <때로는 너의 앞에>, 황병구 편, 『많은물소리.org』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2002), 423장.

불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 된 것이다.

이 축복송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볼 때,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다. 축복받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선포를 통해 자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송정미 교수는 1988년부터 음악사역자(음악 활동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자 송라이터(song writer) 활동을 시작한다. 초등학교 4학년때 한국어린이전도협회의 어린이캠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6학년때 안이숙의 <죽으면 죽으리라>를 읽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 생각했다. 중학교 1학년때 여름수련회에서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평생 찬양하며 살고 싶다고 기도했다.

송정미 교수는 1989년 제8회 극동방송 주최 전국 복음성가경연대회에서 <오직 주만이>를 불러 대상을 받게 된다. 1991년 데뷔 앨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를 발표하고, <송정미 Live Concert>를 출시하며, 1993년 <복있는 사람>, 1995년 <이전보다 더욱-Hymns>를 발표한다.

이어서 <지금 여기에>와 <Anytime Anyplace>를 발표했다. 송교수는 현재 찬양사역자연합회 운영위원, 여성사역자 모임인 '아름다운 만남'의 리더로 섬기고 있다.⁴⁹⁾ 송정미 교수의 성장 과정과 사역 일정을 바라볼 때, 문화선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독교인재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얻게 된다.

음악선교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할 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잘 다니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복음적인 영적 집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잘 형성되게 하며, 적절한 신앙도서 읽기를 통해 인생의 비전을 갖게 도와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음악적 소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음악선교 사역자들을 양성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송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전문기관이 힘을 모아 차세대 음악선교 지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음악선교 현장에서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은 하덕규, 김석균, 박종호, 예수전도단, 올네이션스 등을 들 수 있다.

미술선교란 미술에 대한 선교이며, 미술을 통한 선교다. 미술이란 아름다움을 조형적(造形的)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공간적·시각적 미를 나타내는 그림·조각·공예 등을 말한다. 건축도 미술 속에 포함되지만, 다음 장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은 사람이나 물체의 모습, 또는 만물의 경치 등을 그려서 나타낸 것이다. 조각은 어떤 형상을 입체적으로 새기는 일이다. 공예는 조형미술의 하나로서 기능과 장식의 양면을 조화시켜 직물·염직·칠기·도자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는 일이다.

이와같은 미술의 여러 분야 속에 기독교세계관을 투영시키면서 기독교 소재를 드러내거나 기독교 주제를 표현하게 되면 기독교미술이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속에서 계속하여 좋다고 표현하셨고, 마지막에는 매우 좋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

49) www.songjungmee.org. 참조.

러낸다.

따라서 기독교미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것일 때 우주적 가치를 지니게 될 수 있다. 미술의 소재는 중립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미술가가 그 소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미술선교의 의지가 분명한 미술가는 얼마든지 미술의 소재들을 가지고 기독교미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술가가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전문적 예술성을 살리며 인내심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술의 아름다움과 기독교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미술선교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이 분명하고 미술적 소양이 출중한 인재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일이다.

탁월한 기독교미술가는 어떤 소재를 만나도 최상의 기독교 가치와 예술성을 담보하는 미술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미술가는 곧 미술선교사라 할 수 있겠다. 미술선교를 위해서는 미술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실습을 통해 체험적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예술적 솜씨를 익혀야 한다.

이 미술의 원리 속에 어떻게 기독교세계관을 표현해 낼 것인가는 기독교미술가의 신앙적 안목과 예술성만큼 가능할 것이다. 기독교신앙을 표현한 미술작품은 관람하는 이들에게 예술적 아름다움과 함께 신앙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발견하며,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미술선교는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술교육을 통한 선교도 가능할 것이다. 기독교 소재와 주제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믿음과 예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이나 조각이나 공예물로 표현하게 하는 가운데 기독교세계관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술교육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미술선교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성경 해석의 신앙적 입장에 따라 회화나 조각류를 경원하는 점은 기독교미술을 통한 미술선교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십계명 제2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수천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되어 있다.

이 계명으로 인해 일부 신앙의 입장에서는 미술이 실로 난처한 장르가 된다. 그래서 교회당 강단 뒤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크게 문제시 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와 같은 갈등은 동방교회에서도 있었다. 8~9세기에 큰 논쟁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레오 3세가 726년 화상예배금지령(畫像禮拜禁止令)을 내리기도 했던 것이다.

많은 교직자들과 일반 신도들이 화상예배금지령을 반기지 않았다. 754년에 이에 반기를 든 이들 중 유명한 사람이 다메섹의 요한이었다. 그후 니케아회의에서 큰 논쟁이 있었으나 서방 교회에서는 성화 사용을 허락했다. 이것이 이른바 성화논쟁이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미술에 대해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의 신앙적 입장에 따라 미술을 경원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심미성(審美性)을 시사하시며 예술가적 성품을 보여주셨다. 또 성경은 예술가나 장인(匠人)들의 슬기를 하나님의 은사로 본다.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고, 그분은 시인의 영성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평범한 삶을 신성하게 보셨고, 속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셨

다.

사도 바울도 장인의 일을 한 바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무엇이든지 사랑할만하다고 했다. 구약의 경우에서도 솔로몬왕이 성전과 궁궐 건축을 했다. 모세가 성소를 꾸미고, 성의(聖衣)를 만드는 대목에 대한 서술에서도 성경적인 미술의 의미를 긍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술 자체를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미술품들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것을 경계했다. 기독교미술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 상징은 인간 생활에서 끊을 수 없다. 부호로 표현하는 언어, 동작으로 표시하는 예의 등이 모두 상징의 범주에 속한다.

요한복음 1:1~14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증거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구주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상징이 되셨던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말씀의 권위에만 치중한 나머지 상징에 무관심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강단 뒤의 십자가 표식, 강대상이나 의자를 장엄하게 만들려고 하고 교회당 지붕 위에 십자가를 세우며 성경책 테두리를 붉은색이나 금빛으로 칠하는 것 또는 기도의 자세 등 모두가 상징의 세계에 속한다.

기독교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미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독일의 진켄돌프 백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의 형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 헌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겼다. 또 모라비안 교도들로 인해 존 웨슬레가 일어났다.

기독교미술을 통해 우리의 정서가 경건해진다.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거룩한 차원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미술은 작가의 신앙과 그 시대와 신학적 배경을 말해 주므로 기독교의 이해 내지 역사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엘 그레코의 그림을 보면 반종교개혁의 사상을 알 수 있고, 뒤러의 작품을 보면 종교개혁적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기독교미술은 중세 대가들의 명작들로 대표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미술의 연구는 미술 이해 특히 고전 미술의 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기독교미술은 고전 미술 전공자들에게 미술선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미술은 시각을 통한 기독교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

선진 국가들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기독교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독교미술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⁵⁰⁾ 지금까지 미술선교에 부정적이요인이 될 수 있는 우상숭배 논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독교미술의 가치와 미술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렘브란트의 그림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1647~1649, 에칭)을 보면, 어두운 배경에 빛이 들어오는 광경을 보여 줌으로 치유 현장의 역동성을 나타낸다. 인자한 표정으로 서 계신 예수님이 양손을 벌려 병자를 맞이하여 치유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병자들의 모습은 초췌하지만 치유에 대한 희망과 간구가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광채가 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광선을 생각나게 한다. 이 그림을 보면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구주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와같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병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게 되는 것이다. 이 한쪽의 그림이 한 영

50) 이연호, 「한국 기독교미술과 과제」,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한국 기독교와 예술』(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7), 139~142쪽 참조.

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잘 완성된 기독교미술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음을 보게 된다.

워너 살먼의 <그리스도의 초상>(1940, 캔버스에 유채)을 보면, 빛의 사용과 명암의 적절한 조절로 예수님의 구주되신 성품과 특징으로 신뢰할 수 있을만한 표정을 표현해 내고 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1493~1497)에 등장하는 예수상 다음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 그림은 각광을 받으면서, 성경을 장식하는 그림이나 주일학교 교재, 달력, 포스터, 교회 주보, 범퍼 스티커, 심지어 머그잔이나 선물 포장 용지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미술 작품 중 가장 대중적인 그림이 워너 살먼의 작품이라는 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발파레이소 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는 데이비드 모건 교수는 이 그림을 둘러싼 내용의 저술을 펴냈다. 모건 교수는 수백명의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리스도의 초상>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다. 이 그림이 예수님과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되는 이유 때문에 때로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므로 그들의 응답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연상시키는 혈명한 옷, 긴 머리와 수염, 배경의 흐릿한 처리 등은 과거의 어떤 시대를 어렵פות이 떠올리게 하고, 한편으로 보는 사람에게 다감하고 친숙한 느낌을 주는 듯하다.

이 그림 때문에 이색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다. 총을 들고 집에 들어왔던 도둑이 여인의 뒤에 걸려 있는 워너 살먼의 그림을 보자 “아주머니! 난 당신 뒤에 있는 분 때문에 아무 짓도 할 수 없군요.”라고 말하면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그림을 책상 위에 비치해 놓은 후로 아무도 악담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미신적인 차원으로 빛나간 경우다. 또한 이 그림 앞에서 예수님께 잘못을 고하라는 교육을 했던 사례는 잘못된 것이다. 그림은 감상을 위해 제작된 것이지 기도 대상이나 예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은 그림일 뿐이다. 그림 자체가 예수님의 임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보다 높이 섬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⁵¹⁾

미술선교는 미술을 어디까지나 미술로만 보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독교미술이 지니는 예술적 아름다움과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음미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미술품 자체를 추앙하는 것은 미술선교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 부분은 미술선교에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술선교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게 미술품을 우상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기독교미술을 감상하면서 미술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독교미술교육을 받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미술은 간접적인 선교 효과를 가져오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선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 열매가 나타난다. 따라서 미술선교는 복음을 듣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기에 용이하도록 마음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하며,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후에 믿음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51) 서성록,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서울: 예영, 2003), 133~137쪽 참조.

이상과 같은 문화선교를 통해 기독교문화는 우리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IX. 기독교문화의 정의

기독교문화라는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도 부조리한 사회가 잘 설명되기 어렵듯이, 죄와 불순종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문화를 정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앞에서의 논의들을 토대로 기독교문화의 특성들을 정리한 뒤, 조심스럽게 기독교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한다. 물론 앞으로 더 좋은 정의가 가능하다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새롭게 보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자 한다.

우선 기독교문화의 몇가지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독교문화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고백을 전제로 하는 문화다.

둘째, 기독교문화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및 승천을 믿으며, 형성되는 문화다.

셋째, 기독교문화는 기독교음악, 기독교미술, 기독교문학, 기독교건축과 같은 기독교문화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각성을 촉발시킨다.

넷째, 기독교음악, 기독교미술, 기독교문학, 기독교건축과 같은 제반 기독교문화는 음악선교, 미술선교, 문학선교, 건축선교 등을 통해 인류 사회 속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복음적인 사회의 변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섯째, 기독교문화는 오늘날의 인류가 앓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임을 자각하며, 온난화현상으로 인한 환경문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기아문제, 각종 범죄문제, 인권문제, 가정문제, 교육문제, 민족과 세계의 미래문제 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타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문화의 종차는 위의 다섯가지 특징을 잘 함축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시되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이시며, 문화의 변혁자임을 핵심 가치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문화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대속을 위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삶의 체계다.’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첫째부터 세 번째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대속을 위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속에 함축시키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특징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삶의 체계’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기독교문화론(기독교문화에 대한 논술)이 나와야 하며, 이어서 기독교문화학(기독교문화론에 따라 조직된 지식의 체계)이 꽃피워져야 할 것이다.

X. 결론

앞의 논의에서 문화의 정의에 대해, ‘인간의 탄생 이래 형성된 삶의 양식의 총체’라고 정리했고, 문화의 기원을 ‘하나님이 창조한 첫 인간’에서 찾았다. 에덴동산에서의 불순종에서 문화의 타락이 연유함을 밝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기독교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드러냈다. 기독교문화는 세상문화와 공존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논의했고, 기독교문화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임을 드러냈다. 기독교문화의 사회적 책임은 음악선교, 미술선교, 문학선교 등과 같은 문화선교를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음을 논의한 뒤, ‘기독교문화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대속을 위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삶의 체계다.’라고 정의했다.

기독교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대속을 위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체계며, 지적 체계요, 활동 체계다. 한 인간의 영혼과 우리 사회의 모든 영혼과 전 인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는 기독교문화가 편만해지도록 기독교인들과 교회공동체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글자를 알아가는 순간부터 말과 글을 만들어 사용하며 생각할 수 있는 지적 체계를 우리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분명히 교육하고, 초중고시절과 대학 캠퍼스시절에 그리고, 평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사유하며 지적 체계를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상상력으로 한 사람이 눈뜨고 생활하며 잠자는 순간까지 모든 활동 체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차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패러다임이 전 인류의 문화로 변혁되기까지 기독교인들은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안목에서 사회를 바라보게 될 때,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온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임을 처절하게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남을 날마다 체험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임하게 될 완전한 기독교문화의 나라, 즉 하나님 문화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청지기적 실천으로 지금 여기서 부분적으로 맛보는 가운데, 완벽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개개인의 믿음과 재능을 통해 기독교문화의 한 영역을 만들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초판) 1992(중판).
- 김경완, 『기독교문화의 실제』 (서울: 도서출판 불과구름, 2005).
- 김영한, 「기독교와 문화」,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기독교와 문화』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7).
- 김영한, 『21C 사이버, 생명문화와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 박양식, 『분별력-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 신국원,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 신응철, 『기독교문화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6).
- 이승구, 「기독교 문화 변혁론」, 『기독교학저널』 4(서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 기독교학과, 2007).
- 임성빈, 「기독교적 문화관의 형성을 향하여」, 문화선교연구원 엮음,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최인식, 『예수와 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 추태화,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문화학』 (서울: 코람데오, 2004).
- 케빈 밴후저, 「세계는 과연 무대로서 적합한가? 신학, 문화 그리고 해석학」, *God And Culture*(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3), D.A.카슨 · 존 D. 우드브리지 엮음, 박희석 역, 『하나님과 문화』 (경기도: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Charles H.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A study in Dynamic Biblical Theologiz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New York: Orbis Books), 임윤택 · 김석환 역, 『기독교와 문화』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View of Philosophic And Culture*(England: Inter-Varsity Press, 1968), 문석호 역, 『기독교 문화관』 (경기도: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초판 2007 증쇄).
-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 Kevin J.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8), 김재영 역,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 Leslie A. White, *The Science of Culture: A Study of Man and Civilization*(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49, 1969), 이문웅 역, 『문화과학-인간과 문명의 연구 -』 (서울: 아카넷, 2002).
- Robert E. Webber, *The Secular Saint-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이승구 역, 『기독교문화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4 초판, 1987 3쇄).
- The Willowbank Report, *Gospel and Culture*, 윌로우뱅크신학협의회 지음, 조종남 편저, 『복음과 문화』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1 초판 1993 4쇄).